

축 사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운동사에 큰 획을 그어온 소안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제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민과 함께 항일운동에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열들의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대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주용** 광주 지방보훈청장님, **신우철** 군수님, 【

】

그리고 제10회 전국 학생문예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안면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안항일운동은 일제 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격렬한 민족저항운동으로 구국 운동에 앞장선 우리들의 정신적 자산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유산입니다.

일제의 암울했던 시대에도 독립자금모금과 노동자, 농민 운동으로 13년에 걸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을 승리로 이끌 었을 뿐 아니라, 특히 1920년대 일제의 폭압에 의해 전국의 항일운동이 위축된 시기에도 우리 소안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위친계를 비롯한 일심단과 배달청년회를 조직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정신과 애향정신은 오늘날 지여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배달청년회의 기상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0회 전국학생문예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좋은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뜻과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의로운 용기와 희생정신을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모제를 주관하여 주신 소안항일동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덕으로 생각하며, 그 고마운 마음 기리 간직하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소안면민과 내외귀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